

“Sur la lecture” 小考

洪 承 五

(불어불문학과 교수)

I

마르셀 프루스트는 50여년의 생애를 단 하나의 대작,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천적의 이야기가 이 작품”¹⁾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A la recherche du temps perdu)를 위해 바친 작가이며, 이것 이외의 모든 저작은 결국 이 필생의 작품에 통합되고, 이것 이전에 집필된 일체의 작품은 이것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일련의 습작에 지나지 않는다. 1892년 콩도르세고등학교시절의 친구들과 만든 문학동인지 「향연」(Le Banquet)에 실린 시, 「습작」(Etude)이라는 제목의 짧은 글, 단편소설등을 묶어서 1896년에 출판한 「즐거움과 날들」(Les plaisirs et les jours), 1895년에 착수하여 1899년경까지 단속적으로 집필했으나 마침내 포기해버린 3인칭체의 자전적 소설 「장 상퇴이유」(Jean Santeuil), 1900년 리스킨의 죽음에 즈음하여 속속 발표한 리스킨론과 그 뒤를 이은 리스킨의 작품의 번역, 주해 및 그 출판, 1908년 세상을 떠들석하게 만든 보석모조사건을 줄거리로 삼아 많은 저명작가들의 문제를 모방한 글을 써서 발표하고 출판한 「르무안느사건」(L'affaire Lemoine), 1909년에 소설체의 장문의 평론을 써내려 가다가 미발표의 단편 상태로 남겨졌던 것을 1954년에 베르나르 드 팔루아가 발굴하여 편집 간행한 「생트외브에 대한 반론」(Contre Sainte-Beuve), 이 모든 집필활동이, 필경 1914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하여 프루스트가 사망하고나서 5년이 지난 1927년에야 전 7편, 갈리마르출판사의 보급판으로 16권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소설로 전권의 발간이 끝난 이 대작의 습작과 준비과정이었다는 것을 프루스트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다.

여기서 고찰하고자하는 글 「독서에 대하여」(Sur la lecture)는 제목상으로는 독서론이지만 독립된 글로 구상된 것이 아니라 존 리스킨의 저서 「참깨와 백합」(Sésame et les lys)을 번역 출판하면서 그 책에 서문으로 붙이기 위해서 쓴 글이다. 처음에 1905년 6월 15일자 「라 르네상스 라틴」(La Renaissance latine)지에 “Sur la Lecture”의 제목으로 게재되면서 존 리스킨의 「왕들의 보고」(Des Trésors des Rois)를 위해서 쓰인 서문이라는 설명이 붙었

1) “(…) la vocation invisible dont cet ouvrage est l'histoire,” Marcel Proust, *A la recherche du temps perdu*(앞으로는 R.T.P.로 약기) t. II,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Paris, Gallimard, 1954, p. 397.

다. 그 이듬해 6월에 메르퀴르 드 프랑사에서 간행된 러스킨 저 프루스트 역 「참깨와 백합」(*Sésame et les lys*)에 서문으로 실리면서 「역자의 서문——독서에 대하여」(*Préface du traducteur—Sur la lecture*)라는 제목이 붙었다. 1919년에는 그때까지 발표된 평론을 모은 「모작과 잡록」(*Pastiches et mélanges*)에 수록 간행되었는데 이 때 주를 포함하여 다소 손질이 되면서 제목이 「독서의 날들」(*Journées de lecture*)로 바뀌고 그후에 플레이아드판에는 이 「독서의 날들」의 형태로 수록되었다. 「참깨와 백합」은 절판된지 오래되었고 1987년에 앙투안 콩파농의 서문이 곁들여진 판이 복간되어²⁾ 프루스트의 서문은 “*Sur la lecture*”의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모작과 잡록」에는 또한편의 “*Journées de lecture*”³⁾가 수록되어 있으나 이것은 프루스트가 러스킨에 대해 갖는 관심이 거의 사라져가는 시기인 1907년 3월 20일자 「르 피가로」(*Le Figaro*)지에 부아뉴백작부인의 회고록에 대해서 쓴 평론이기 때문에 러스킨이나 그와 관련된 “*Sur la lecture*”와는 전연 무관한 것이다.

이렇듯 이 글은 프루스트가 읽은 영국작가들 중에서 가장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일종의 흠모의 마음까지 품게 하는 러스킨의 작품을 조금이라도 더 불란서에 소개하기 위해서 번역하고 거기에 소개와 해설을 겸하여 자기자신의 견해까지도 밝히고자 하는 서문이라는 성격과, 그 내용으로 볼때 러스킨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후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어린시절의 회상과 독서에 대한 성찰로 구성되어 있다는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장차 필생의 대작을 향해서 걸어가게 하는 프루스트의 이른바 러스킨시기의 정신활동의 한 과정을 살펴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결코 가볍게 보아넘길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는 먼저 그의 번역과정에 관련된 몇가지 사실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서문의 구성과 그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프루스트가 러스킨의 작품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 것은 언제쯤인지를 밝혀줄 수 있는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조지 페인터가 쓴 전기에 의하면 프루스트가 러스킨을 접하게 되는 것은 정치 학교(*Ecole des Sciences politiques*)에서 강의를 들던 시기에 그곳의 교수인 폴 데차르맹을 통해서였다.⁴⁾ 프루스트가 이 학교에 적을 둔 것은 1890년 가을부터 1893년까지

2) John Ruskin, Marcel Proust, *Sésame et les Lys*, Précédé de *Sur la lecture*, Introduction d'Antoine Compagnon, “Le Regard Littéraire, 10,” Bruxelles, Editions Complexe, 1987(앞으로는 S.L.로 약기)

3) Marcel Proust, *Contre Sainte-Beuve*,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Paris, Gallimard, 1954, (앞으로는 C.S.로 약기) p.527, Essais et articles면.

4) “Lorsqu’il suivait les cours de l’école des Sciences politiques, Paul Desjardins lui avait fait faire connaissance avec Ruskin; c’est dans un périodique publié par Desjardins, *le Bulletin de l’Union pour l’action morale*, auquel il était abonné, qu’il lut de brefs extraits de Ruskin.

이므로 이 무렵에 러스킨의 존재를 알게 되었을 것이다. 테자로랭은 「도덕적행동을 위한 동맹」(Union pour l'action morale)을 주관하고 월 2회 회보를 발행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러스킨의 저서들 예컨대 「산 마르코의 휴식」(Le Repos de Saint-Marc), 「참깨와 백합」, 「근대화가론」(Les Peintres modernes), 「베네치아의 돌」(Les Pierres de Venise), 「야생올리브의 관」(La Couronne d'olivier sauvage), 「건축의 일곱등」(Les Sept Lampes de l'architecture)등에서 발췌한 것을 번역 게재하였다. 한편 1893년에 사귀기 시작한 로베르 드 몽테스키우가 그의 친구인 미국화가 휘슬러의 저서 「적을 만드는 법」(L'Art de se faire des Ennemis)을 보내와서 프루스트는 그 책에서, 러스킨이 1877년에 휘슬러의 그림 「야곡」(Nocturnes)을 혹평한 데서 발단하여 마침내 러스킨과 휘슬러 사이의 소송사건으로까지 발전함으로써 런던 사회를 한때 떠들썩하게 만든 이야기를 읽게 되어 러스킨의 한 면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다.⁵⁾

1896년 12월에는 영어를 잘 못하는 프루스트와 러스킨 번역작업을 그후에 크게 도와줌으로써 프루스트가 공역자로서 책에 이름을 넣자고 제안까지 하게 되는 귀중한 협력자가 될 영국인 여류예술가 마리 노들링어양을 프루스트의 친구 레날도 양의 집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 노들링어는 레날도 의 외가쪽 사촌누이동생으로서 조각·회화를 공부하기 위해 왔으며 1898년 8월까지 파리에서 지내면서 프루스트가 러스킨의 세계에 들어가는데 또한 단단히 일조를 하게 된다.⁶⁾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프루스트는 러스킨에 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은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는 로베르 드 라 시즈란이 1895년 12월부터 1897년 4월까지 5회에 걸쳐서 Revue des Deux Mondes 지에 단속적으로 발표한 다음 그 해에 단행본으로 아셰트출판사에서 간행한 「러스킨과 미의 종교」(Ruskin et la Religion de la beauté)가 더큰 영향을 끼쳤다. 프루스트는 이 책이 간행되자 곧 읽었고 어쩌면 잡지에 게재될 때 읽었을지도 모른다고 페인터는 말한다.⁷⁾

이 책은 제목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듯이 러스킨을 미의 종교를 온 누리에 전파하는 사명을 띤 사도로서 그리고 있다. 그의 여러 측면중에서 정치사상가, 사회주의적 성향의 사회개혁자, 도덕을 옹호하는 설교가로서의 면모는 간단히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고 많은 지면을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중세의 고딕양식의 미술과 터너와 또 영국의 라파엘로전파 등을 지지하는 미술평론가로서의 면모, 자연관찰자, 환경보호론자로서의 면모를 소개하는데 할애하고 풍부한 인용을 곁들임으로써 러스킨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입문서로서의 요건을 갖춘 것이었다.

traduits de l'anglais, chaque année de 1893 à 1903 (sauf en 1894 et en 1901).” George Painter, *Marcel Proust 1871~1903 Les années de jeunesse*, Traduit par G. Cattani et R.-P. Vial, nouvelle édition, Paris, Mercure de France, 1985, p. 323.

5) Ibid.

6) 위 책 p. 269, p. 325.

7) 위 책 p. 324.

1899년 여름에 프루스트는 친구인 동시외와 러스킨에 관해서 장시간 토론을 하고 그에게 라 시즈란의 책을 빌려준다. 그리고 예비양으로 휴가를 보내러 떠난다. 9월하순에 친구 클레망 드 모니와 함께 러스킨이 알프스를 보러 갔던 발자취를 더듬어 오토 사부아의 토농시를 굽어보는 높은 언덕에 올라가 레망호 뒤에 높이 솟아있는 알프스산맥을 전망했다. 그런데 러스킨이 알프스의 숭고한 광경을 보고 내려오면서 성스럽고 유용한 일에 평생을 바치겠다는 친척에 눈뜨는 감동적인 글이 인용된 라 시즈란의 책을 읽을 때의 감동과 자기 자신이 받고 있는 감동에는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먼저 빠리로 올라간 어머니에게 라 시즈란의 책을 곧 보내달라고 편지를 쓴다. 이 위인의 눈으로 산들을 바라보고 싶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프루스트의 현존하는 서한중에서 처음으로 러스킨의 이름이 나타나는 것이다.⁸⁾ 책이 도착하는 것도 기다리지 못하고 프루스트는 곧 빠리로 돌아간다. 러스킨에 대한 열광이 고조에 달한 것이다. 친구 동시외를 데리고 루브르박물관으로 또는 국립도서관으로 돌아다니는데 국립도서관에 다니면서는 불어로 번역된 러스킨의 저서와 평론을 찾는다. 「르뷔 제네랄」(Revue générale)지 1895년 10월호에 게재된 「건축의 일곱 등」의 한 부분의 번역문을 찾아내어 읽는가 하면 미술학교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는 친구 피에르 라발레에게 「하늘의 여왕」(La Reine de l'air)를 대출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왕성한 독서열 속에서 러스킨의 저서를 섭렵하고 있었다. 이 무렵의 프루스트가 러스킨에게 얼마나 열중하고 있었는지는 「아미앵의 성서」(La Bible d'Amiens)의 번역본 서문의 후기에 쓴 다음 글을 보더라도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Il est certain qu'aux premières pages que je lus, sentant leur puissance et leur charme, je m'efforçai de n'y pas résister, de ne pas trop discuter avec moi-même (...)”⁹⁾ “Et ce fut ainsi en effet; l'univers reprit tout d'un coup à mes yeux un prix infini.”¹⁰⁾

그해 11월부터는 지난 몇년동안 써오던 긴 작품 「장 상퇴이유」를 포기하고 러스킨에 관해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했다. 12월 5일자 마리 노들링어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런 말이 있기에문이다.

“Je travaille depuis très longtemps à un ouvrage de très longue haleine, mais sans rien achever.

8) 1899년 9월 25일 또는 26일자. “Comme je dépense beaucoup d'argent en ouate peut-être pourrais-tu m'en envoyer un gros paquet [...] et le livre de La Sizeranne sur Ruskin (je demanderai d'abord à d'Oncieu si je ne le lui ai pas prêté).” Marcel Proust, *Correspondance*, texte établi par Philip Kolb, t. II (1896~1901), Paris, Plon, 1976, p. 348.

동년 10월 2일(월요일)자. “Si *Les Plaisirs et les Jours* peuvent arriver avant jeudi soir expédie-les (...). Et à moi le livre de la Sizeranne sur Ruskin s'il est dans ma bibliothèque pour voir les montagnes avec les yeux de ce grand homme.” 위책 p. 357.

9) C.S.B., p. 130 및 John Ruskin, *La Bible d'Amiens*, Traduction, notes et préface de Marcel Proust, “10/18,” Paris, Union Générale d'Éditions, 1986, (앞으로는 L.B.A.로 약기) p. 90.

10) C.S.B., p. 139, 및 L.B.A., p. 131.

Et il y a des moments où je me demande si je ne ressemble pas au mari de Dorothee Brook dans Middlemarch et si je n'amasse pas des ruines. Depuis une quinzaine de jours je m'occupe à un petit travail absolument différent de ce que je fais généralement, à propos de Ruskin et certaines cathédrales. Si je parviens à le faire publier par une Revue, comme j'espère y réussir, je vous l'enverrai aussitôt qu'il sera paru.¹¹⁾

이 편지에서 언급하고 있는 작업이 「아미앵의 성서」의 번역과 거기에 붙이는 주석을 가리키는 것인지 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언급된 바 없다. 그러나 여러가지 관계로 보아서 그것은 1900년 4월호 *Mercur de France*지에 「아미앵의 노트르담성당에서의 러스킨」(Ruskin à Notre-Dame d'Amiens)의 제목으로 게재된 후에 「아미앵의 성서」에 「역자의 서문 Ⅱ. 러스킨에 의한 아미앵의 노트르담성당」(Préface du traducteur Ⅱ. Notre-Dame d'Amiens selon Ruskin)과, 1900년 4월 1일호와 동년 8월 1일호 *La Gazette des Beaux-Arts*지에 「존 러스킨」(John Ruskin)의 제목으로 2회에 걸쳐서 게재되었다가 후에 「아미앵의 성서」에 「역자의 서문 Ⅲ. 존 러스킨」의 제목으로 들어가게 될 글인 것이다.

그런데 이 작업을 하고 있다고 프루스트가 노들링어양에게 편지로 알린지 겨우 한달보름이 지난 1900년 1월 20일에 러스킨은 8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다. 그러나 프루스트의 러스킨열기는 이 부음을 접하고 식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더 달아오르는 것 같았다. 그는 곧 러스킨추도기사를 발표하고 뒤이어 「존 러스킨」등 일련의 러스킨논고를 발표하는 한편 「아미앵의 성서」의 번역에 전념했다. 영어를 할줄 모르는 그를 위해서 그의 어머니가 우선 촉자역을 해놓고 그것을 그가 본문과 대조해가면서 첨삭해나가는 과정을 거치고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리 노들링어양에게 편지를 하거나 영국인 또는 영어에 능통한 불판서인에게 질문을 해야 했다. 이렇듯 헌신적인 어머니의 도움에 힘입어 1903년 2월과 3월 2회에 나누어 문예지 「르네상스 라틴」(*La Renaissance latine*)에 그 일부를 게재할 수 있었고 1904년 2월에는 메르퀴르 드 프랑사사에서 단행본으로 간행하게 되었다.

번역작업이 끝나고 번역문에 붙일 역자의 장문의 서문까지 준비된 1903년 말 또는 1904년 1월에 프루스트는 러스킨의 「참깨와 백합」을 번역하기로 결심했다. 노들링어에게 보낸 편지의 구절에서 본 것처럼 1895년에 집필을 시작한 「매우 호홉이 긴 작품」 「장 상퇴이유」는 수천매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초고를 만들어놓은 채 여기에 통일성을 부여하고 하나의 작품으로 꿰어놓을 능력이 미치지 못하여 막다른 길에 막혀버린 형국에 이르러 있어 작가로서의 자기의 재능에 대한 의문이 생기고 그렇다고 타개해나갈 구체적인 계획도 서지 않아 어찌할바를 모르고 있을 때 만난 것이 러스킨이었는데 그의 저서를 번역하고 난 지금도 자신의 창작과 관련된 여건에는 조금도 변한 것이 없었다. 마음이 끌리는 외국인 저자를

11) Marcel Proust, *Correspondance*, texte établi par Philip Kolb, t. II (1896~1901), Paris, Plon, 1976, p. 377. (앞으로는 Kolb로 약기).

철저하게 이해하고 그의 사상을 완전히 소화하여 자기 자신의 정신적 양분으로 흡수하려면 그의 저서를 번역해보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다. 다른 사람이 옮겨 놓은 것을 읽으면 편하기는 하나 언어의 차이라든가 낱말과 표현에 함축된 문화적 배경의 차이등으로 인해 때로는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참뜻을 굴절시키거나 엉뚱하게 왜곡 전달할 가능성도 있고 적합하지 않은 역어의 선택이 오히려 올바른 이해를 가로막아 독자가 독서를 마치고 책을 덮으면서 격화소양의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을 안겨줄수도 있다. 또 그와는 반대로 외국어의 독해능력이 탁월하여 원전을 어려움 없이 접하는 경우에는 자신감이 탈이 되어 빠른 속도로 목독을 함으로써 친근히 음미하고 재삼 숙고해보아야 할 중요한 대목을 스쳐지나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어로 회화를 할 줄 모르고 만족스러운 독해력을 갖지 못한 사람의 경우 오히려, 모호한 구절 난해한 문장을 해독해야 할때나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아야 할 때마다 그 일에 노력을 집중해야 하고, 또 여러개의 비슷한 단어를 놓고 그중에서 어느것을 역어로 택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게 되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게 마련이며 그 결과 한구절 한구절 더욱 신중히 읽고 자기가 과연 올바르게 이해했는지 재삼 확인해보게 마련이다. 프루스트는 「아미앵의 성서」를 번역하면서 이런 과정을 겪고 러스킨의 사고형태를 파악할 수 있었고 그의 감수성에 동화해갔으며 마침내 그의 사상까지 소화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참깨와 백합」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다시 한번 밟으면서 이번에는 러스킨에 관해 프루스트자신의 의견을 덧붙이지 말란 법이 없다.

「참깨와 백합」의 번역은 처음부터 마리 노들링어의 협력으로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면서 순조롭게 공동작업으로 진행해나갔다. 1904년 2월 6일자 노들링어 앞 편지에는 “J’ai travaillé comme un nègre à *Sésame* et refait de nouveau tout le commencement et entièrement le 1^{er} cahier *ne variatur*.”¹²⁾ 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열심히 재검토하면서 작업을 상당히 진척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러스킨의 「참깨와 백합」은 1864년 12월 6일에 러스킨이 맨체스터근교의 라섬시 시청에서 라섬학원 부속도서관의 건립을 원조하기 위해서 한 독서에 관한 강연인 제 1 강연 「참깨—왕들의 보고에 관하여」(*Sésame—Des Trésors des Rois*) 및 동년 12월 14일에 앤코스에 학교들을 설립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한 여성의 역할에 관한 강연인 제 2 강연 「백합—왕비의 정원에 관하여」(*Les Lys—Des Jardins des Reines*)로 이루어져 1865년에 초판이 간행되었고 그 후 1871년에는 여기에 1868년 5월 14일에 더블린왕립이과대학에서 한 제 3 강연 「인생과 예술의 신비」(*The Mystery of Life and its Arts*)가 덧붙여졌다가 1882년에 신판을 간행할 때에 러스킨이 제 3 강연을 다시 삭제했기 때문에 그 후에 출판되는 보급판에서는 제 1 강연과 제 2 강연만이 수록되어 있다. 그중에서 제 1 강연의 번역작업은 1904년 5월에 거의 끝나간것 같다. *Arts de la Vie* 지의 편집장 가브리엘 무레가 번역의 게재를 승락해

12) Kolb, t. IV (1904), 1978, p. 57.

준데 대한 감사의 말을 쓴 5월 17일 또는 24일자로 추정되는 편지에서 프루스트는 번역이 이제 겨우 끝났으나 퇴고가 끝나려면 앞으로 한두달 더 걸리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¹³⁾ 그러나 이 한두달은 완벽을 추구하는 프루스트의 집념과 러스킨의 본문보다도 훨씬 더 길어져가는 역주때문에 적어도 4개월이상이 걸리게 되어 9월 13일자로 추정되는 무레에게 보낸 편지에서 원고를 조금 더 손질해서 그 제 1부를 2주일후에 보내겠으나 가까운 시일내에 쓸 것이 아니라면 좀더 기다려서 퇴고를 하고 싶다고 하는 뜻을 비치고 있다.¹⁴⁾

1905년 2월 9일 또는 10일자로 추정되는 마리 노들링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는 제 1강연 「참깨와 백합」에 제 2강연 「왕비의 정원」을 붙이기로 결정했으며 이번에는 찰즈 뉴튼 스코트가 번역작업을 도와주게 될 것이라고 알려 주고 있다.¹⁵⁾

어쨌든 프루스트가 완성한 러스킨의 제 1강연 「왕들의 보고」의 초역은 1905년 4월 15일 및 5월 15일에 Arts de la Vie지에 연재되었다. 또 역자의 서문에는 “Sur la lecture”라는 제목이 붙어서 안나 드 노아이유의 친정오빠인 콩스탕탱 드 브랑고방이 창간하여 주재하는 La Renaissance latine지 6월 15일호에 발표되었고 제 2강연과 각주까지 붙은 단행본은 1905년 5월 12일에 인쇄가 끝나 메르퀴르 드 프랑스사에서 간행되었다.

그러나 「참깨와 백합」의 간행과 더불어 그의 번역의 시기, 더 나아가서는 러스킨에 대한 일방적인 열광의 시기는 종언을 고한다.¹⁶⁾ 러스킨사망 직후에 얼마나 그를 찬미하고 경칭하고 이해하려 하고 그에게 복종하려하고 있는지¹⁷⁾ 스스로 알고 있었으나 번역작업을 해나가는 동안에 러스킨에 대한 프루스트의 견해는 비판적인 색채를 띄우기 시작하여 “분명히 러스킨의 작품의 바탕에는 그리고 그의 재능의 뿌리에는 (바로 그러한) 우상숭배가 발견되는 것 같”¹⁸⁾아서 “러스킨에게 이러한 불만을 토로하고 그에 대한 절대적 찬미 속에서 이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성실성의 그 마지막 한계에까지 가지 않으면 안되었

13) “Je suis ravi que vous vouliez bien des Trésors des Rois. Mais je ne peux pas vous les envoyer encore (...) je termine seulement ma traduction, il va falloir la revoir très minutieusement et je ne pense pas qu'elle puisse prendre une forme définitive avant un mois ou deux.” Kolb, t. IV, pp.123-124.

14) “Je voudrais les (les Trésors des Rois) revoir encore un peu et dans une quinzaine vous enverrai la première partie. Si vous ne comptez pas vous en servir avant longtemps j'attendrais un peu plus pour les revoir.” Kolb, t. IV, pp.256-257.

15) “Ayant un peu de répit ces jours-ci j'ai commencé *Queens Gardens* que j'ai décidé d'ajouter à *Sésame*. Mon vieux et charmant savant anglais dont je vous ai parlé me servira de “Mary.”” Kolb, t. V (1905), 1979, p. 42.

16) 1906년 12월 7일 마리 노들링어에게 보낸 편지에서 : “Travaillez-vous? Moi plus. J'ai clos à jamais l'ère des traductions, que maman favorisait.” Kolb, t. VI (1906), 1980, p. 308.

17) 1900년 1월 21일 직후 마리 노들링어에게 보낸 편지에서 : “(...) je sens combien c'est peu que la mort en voyant combien je l'admire, l'écoute, cherche à le comprendre et lui obéir plus qu'à bien des vivants.” Kolb, t. II, p. 384.

18) C.S.B., p. 129. “(...) il semble bien qu'à la base de l'œuvre de Ruskin, à la racine de son talent, on trouve décidément cette idolâtrie.”

다고”¹⁹⁾하는 말을 「아미앵의 성서」의 서문에 다시 덧붙인 후기에 쓰고 있다.

III

독서, 그리고 책을 프루스트의 작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중의 하나이다. 특히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는 주인공이며 화자인 마르셀의 독서와 다른 작중인물들의 독서를 다루거나 또는 책이라든가 작가들에 관해서 마르셀이 토론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장면을 자주 만나게 된다. 이 소설 자체가 재능을 타고나지 못했다고 실망하고 있던 화자 주인공이 마침내 작품을 쓸 수 있게 된다는 작가탄생의 이야기라는 것, 서두부터 독서를 하고 있는 「나」가 묘사되고 있다는 것, 독서에서 얻는 즐거움과 저자가 전해주는 것에 대한 동경등이 소개되어 있다는 것, 작가 베르고트에 관한 것을 비롯해 독서의 문제가 전작품에 걸쳐서 여기저기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 등 일일이 열거하자면 끝이 없을 것이다.²⁰⁾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독서와 관련된 주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동안 성찰이 거듭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러스킨의 독서론 즉 「참깨와 백합」에 수록된 「참깨——왕들의 보고」를 번역하면서 일단은 번역자의 당연한 의무로서 원저자의 의도를 배반하지 않도록 충실하게 옮겨놓으려고 마리 노들링어와의 공동작업에 전력을 기울이지만²¹⁾ 그래도 경계하는 원저자의 의견에 때로는 동의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다. 디스바크는 그의 프루스트전기에서 말하기를 프루스트가 「참깨와 백합」의 제 1부를 번역하면서 작업에 어찌나 열의를 가졌던지 텍스트로부터는 아니지만 적어도 러스킨의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날 필요를 느껴, 번역문의 서문으로 쓰일 글을 집필했다고 말하고 있다. 러스킨의 책을 처음 몇페이지 읽기만 하고서도 그 힘과 매력을 느낀 그가 그 힘과 매력에 저항하지 않으려고 그 자신과 너무 따져들며 토론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고 러스킨의 사상에 대한 존경과 사랑에 의해서 그의 이해력과 감지력이 무한히 증대하고 비판감각과 그밖의 다른 것들도 포함해서 모든 능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자발적 굴종」 상태에 들어있었고 그것만이 풍부한 결실을 가져다준다고 믿었던²²⁾ 프루스트가 이제 자기 자신의 정신을 되찾고

19) C.S.B., p. 137. “(Je prie...notre contemporain...de penser...) qu'il m'a fallu (...) arriver aux dernières limites de la sincérité avec moi-même, pour faire à Ruskin ce grief et pour trouver dans mon admiration absolue pour lui cette partie fragile.”

20) 극히 일부만 들어보더라도 다음과 같다. R.T.P., t. I, pp. 39-43, p. 72, p. 80; pp. 83-88, pp. 93-97, p. 100, p. 152, p. 154, pp. 550-551, p. 554, pp. 556-557, p. 653. R.T.P., t. II, p. 565, p. 836, p. 936. R.T.P., t. III, p. 35, pp. 356-379, pp. 883-885, p. 887.

21) Les Arts et la Vie지 편집장 Gabriel Mouray에게 보낸 편지에 “Je voudrais qu'elle (=traduction) fût fidèle comme l'amour et comme la pitié.”라는 말이 있다고 한다. Ghislain de Diesbach, *Proust*, Paris, Perrin, 1991, p. 344에서 재인용.

22) “Nous sommes simplement alors dans un état de grâce où toutes nos facultés, notre sens critique aussi bien que les autres, sont fortifiées. Aussi cette servitude volontaire est-elle le

간접적인 비판을 하고자하는 것이다.

프루스트는 서문에서 독서의 유용성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성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첫머리에 상당히 긴 주를 붙여 그 속에서 이 서문의 성격을 먼저 밝히고 있다. 이 서문은 러스킨에 대한 언급은 거의 들어있지 않지만 그래도 그의 독서의 유용성에 대한 주장에 대한 일종의 간접적인 비판이고 자기는 본의아니게 미리부터 러스킨의 생각과 대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미앵의 성서」의 역자의 서문에 덧붙인 후기에서 이미 나타나기 시작한 비판의 색채가 이 서문에서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직접적인 비판으로서 러스킨의 본문의 거의 모든 페이지에 각주로 붙인 주만으로 충분했다고 밝혀 이 서문에서는 간접적 비판으로 일관하겠다는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이 주에서는 쿠크와 웨더번이 편집한 영국의 라이브러리 에디션과 자기의 번역서 사이의 근본적인 성격의 차이를 제시하면서 자기가 택할 방법을 말하고 있다. 라이브러리 에디션은 순수하게 학술적인 판이므로 러스킨의 텍스트에 대한 편자의 해설을 붙이지 않고 아직 간행되지 않은 문헌·이문(異文) 즉 정확한 참고정보를 붙이는 것만으로 그치고 있는 반면에 프루스트는 러스킨의 텍스트에 끊임없이 해설을 가하고 그것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프루스트가 러스킨의 다른 저서의 문장을 인용해서 비교대조하고 있을 때조차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작업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학술적인 성격의 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교대조는 「두개의 다른 대목을 너란간 함께 조명해내는 기억의 번득임, 감수성의 섭광에 지나지 않는다.」²³⁾ 이것은 무슨 말인가. 이에 관해서는 「아미앵의 성서」의 역자의 서문의 「머리말」에 있는 설명을 읽으면 알 수 있다.

“En mettant une note au bas du texte de *la Bible d'Amiens*, chaque fois que ce texte éveillait par des analogies, même lointaines, le souvenir d'autres ouvrages de Ruskin, et en traduisant dans la note le passage qui m'était ainsi revenu à l'esprit, j'ai tâché de permettre au lecteur de placer dans la situation de quelqu'un qui ne se traduisait pas en présence de Ruskin pour la première fois, mais qui, ayant eu avec lui des entretiens, pourrait, dans ses paroles, reconnaître ce qui est, chez lui, permanent et fondamental. Ainsi j'ai essayé de pourvoir le lecteur comme d'une mémoire improvisée où j'ai disposé des souvenirs des autres livres de Ruskin,—sorte de caisse de résonance, où les paroles de *la Bible d'Amiens* pourront prendre plus de retentissement en y éveillant des échos fraternels.”²⁴⁾

프루스트의 생각으로는 어느 저자의 저서를 한권밖에 읽지 않는 것은 그 저자와 한권밖에 만나지 않은 것과 같은데 물론 어떤 사람과 단 한번만 만나더라도 그에게 특유한 특징

commencement de la liberté. Il n'y a pas de meilleure manière d'arriver à prendre conscience de ce qu'on sent soi-même que d'essayer de recréer en soi ce qu'a senti un maître.” 「아미앵의 성서」 역자서문 후기, C.S.B., p. 140; L.B.A., p. 93.

23) “Ils ne sont rien qu'un éclair de la mémoire, une lueur de la sensibilité qui éclairent brusquement ensemble deux passages différents.” C.S.B., p. 794; S.L., p. 38.

24) L.B.A., p. 10.

을 알아볼 수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을 그사람의 정말로 특징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그것이 여러가지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이다. 리스킨의 경우도 그의 저서 단 한권만 읽고 이것이 그의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판단하기는 힘들고 그보다는 여러가지 저서를 비교대조해서 그것들에 공통되는 특징이 떠오를 때 그것이야말로 그에게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특징이라고 비로소 말할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미앵의 성서」의 문장이 그 저자의 다른 저서를 여러가지 유사에 의해 상기시키게 되면 역자 프루스트는 그것을 각주로써 지적해 주어, 독자도 리스킨을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전에 이미 만남일이 있기 때문에 리스킨 속에 항상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것임을 식별할 수 있게 해주려고 꾀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평가가 수행해야 할 으뜸가는 임무라고 프루스트가 생각하는 것도 바로 독자가 이들 독자적인 특징에 깊은 인상을 받도록 도와주고 어떤 작가의 특질을 이루는 본질적인 특징으로 여겨질수 있는 유사한 특징들을 독자의 눈앞에 늘어놓아주는 일이다. 그러기에 이 서문 첫머리의 주에서 언급한 작업 즉 프루스트가 리스킨의 다른 저작의 문장을 인용하여 비교대조하는 작업은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작업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프루스트의 기억의 번득임 그의 직관에 의거하여 유사성을 찾아 다른 문장들을 비교대조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개인적인 작업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기억의 번득임, 감수성의 섬광을 일으키는 아날로지의 감각은 프루스트의 미래의 대작속에서도 그의 작품세계를 떠받치는 기둥의 하나로 큰몫을 하게 된다.

서문의 본문은 프루스트가 어린 시절에 체험한 휴가중의 독서에 대해서 서술한 전반부와 이보다는 길이가 약간 더 길게 독서에 관한 그의 일반적인 고찰 및 견해를 서술한 후반부로 확연히 구분이 되게 구성되어 있는데 프루스트의 독서론을 처음부터 예상하고 있는 독자에게 이 리스킨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채 프루스트에 의해 회상된 그의 어린시절의 추억담은 의외라는 반응으로 받아들여진다. 이것은 어린시절에 부활절이나 여름휴가때 시골의 친척집에 가서 지내던 날들의 추억 속에서 어떤 전형적인 휴가의 하루를 택해서 동사의 기본시제를 직설법반과거로 설정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여러가지 사건을 배치해나가는 기법으로 구성된 추억담으로서 이 수법은 그 후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도입부 「콩브레」에서 활용된다. 「콩브레」에서는 그 유명한 “Longtemps, je me suis couché de bonne heure.”²⁵⁾란 구절로 시작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오래동안이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인지, 또 「나」는 언제 이 글을 쓰고 있는지 독자는 알지도 못한채 곧 이어

“Parfois, à peine ma bougie éteinte, mes yeux se fermaient si vite que je n'avais pas le temps de me dire: “Je m'endors. (...)”²⁵⁾

처럼 반과거로 쓰인 문장이 이어져 나간다. 그러다가 「나」는 시골의 생루부인의 별장에 있

25) R.T.P., t. I, p. 3.

다는 것을 상기한다.

“(…) j’étais dans ma chambre chez Mme de Saint-Loup, à la campagne (…)”²⁶⁾

이것도 반과거로 쓰이고 있다. 이 별장에서의 체류는 몇십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의 일이 다루어지는 제 7편 「되찾은 시간」의 첫머리에 나오는 삽화이지만 「콩브레」에서는 이때 되살아난 기억이 해질녘의 콩브레, 어머니의 잘자라는 인사의 키스를 상기하는 장면등을 펼쳐보인다. 그러다가 갑자기

“Il y a bien des années de cela. La muraille de l’escalier où je vis monter le reflet de sa bougie n’existe plus longtemps.”²⁷⁾

라고 현재 시제로 된 문장이 나오고 독자는 콩브레 전체가 생생하게 되살아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나」라는 사람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이러한 소설전체의 구성의 틀을 만들어나가는 기본시제 반과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후에 일어나는 개개의 일들은 전후관계등에 따라서 혹은 대과거로 혹은 단순과거로 혹은 필요한 다른 시제로 서술된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 서문에서의 동사의 시제 사용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 그 소묘의 하나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이고 다른 요소들에 관해서도 이러한 관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시골 친척집에서 보낸 어린시절의 부활절 휴가중 하루의 무대의 경우가 또한 그럴 것이다.

그 무대는 「콩브레」의 경우와 같이 프루스트의 아버지의 고향인 일리에이고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집은 「레오니 아주머니의 집」으로 이제는 알려져 있는 집, 다시 말하자면 프루스트의 고모가 출가한 질 아미요의 집과 여러가지 유사한 면을 갖고 있다. 지금은 프루스트 기념관으로 공개된 이 집은 그 속의 식당, 침실, 뜰, 그리고 마을에서 1킬로 미터가량 떨어진 곳에 있는 「프레 카틀랑」이라는 이름의 고모부 아미요씨 소유의 정원등 모든 것으로 보아 「콩브레」에서 묘사된 것 보다 이 서문에서 묘사된 것이 현실과 더 유사하다. 이것은 프루스트가 주위 현실에서 보고 뇌리에 축적한 여러 자료들을 다루면서 그중에서 필요한 것들만을 취사선택하여 구상중인 작품 속의 배경으로 재구성해 내는 역량이나 경험이 쌓이지 못해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충실하게 묘사했고 그 후에 「콩브레」에서는 머리 속에서 그리는 작품세계 속의 무대배경으로 알맞게 재배치할 수 있게 된것에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여기서의 하루 소일은 어디까지나 독서로 시종하고 「콩브레」에서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오전에 「나」는 모두들 아침에 정원에서 돌아와 산보하러 나

26) Ibid., p. 6.

27) Ibid., p. 37.

가면 식당에 살땀이 들어가서 독서에 탐닉한다. 점심후에 이층의 자기 방으로 올라가서 또 다시 독서를 계속한다. 여기서 자기 방의 위치, 가구의 배치, 실내장식 등의 묘사와 고찰이 서술된다. 오후에 모든 식구와 함께 1킬로미터 밖의 정원에 가서 의무적인 놀이가 끝나면 간식을 먹고 다른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정원의 정자속으로 가서 또다시 독서삼매경에 빠져 든다. 또 때로는 저녁을 먹고 나서 침대 속에 들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부분을 마저 읽기도 했다. 이렇듯 아침부터 밤까지 온종일 때로는 어른들의 눈을 피해가면서도 대체 책의 제목이 무엇인지도 밝혀지지 않고 또 그 내용이 동화인지, 소설인지, 희곡인지 위인인지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는 책을 읽은 어린시절의 추억이 묘사되고 있다. 다만 끝부분에 가서 등장인물이 독자에게 주는 인상과 책이 독자의 가슴에 남기는 여운, 그리고 성인이 된지 오래된 현재의 눈으로 돌아본 그당시의 자기가 그 책의 가치에 대해서 내린 판단의 착오등에 관한 언급이 약간 있을 뿐 진지한 독서에 관련된 고찰은 없다. 그보다는 독서행위가 진행된 장소에 관련된 묘사, 예를 들어 오전에 들어박혔던 식당에 있는 가구로서 벽에 걸린 그림이 그려진 접시, 일력, 추시계, 난로등과 밖의 작은 뜰, 팬지의 화단과 그 가장자리에 놓인 벽돌과 사기, 자기 방의 묘사, 가구 집기류의 세밀한 묘사, 축제의 성당앞 광장의 정경의 묘사등이 더욱 상세하다. 여기 묘사하고 있는 여러가지 요소들 중에는 몇해 전 1899년말경에 집필을 포기해버린 「장 상퇴이유」를 준비하기 위해 써 놓은 단편적인 원고 속에서 이미 다루어진 요소들, 예를 들어 하나, 식당의 난로의 불, 종소리 등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보다는 여기에서 다루어진 요소들이 「콩브레」에 다시 등장하는 예가 훨씬 많다.

예를 들자면 두개의 꽃병, 구세주의 초상화, 부활절 회양목 가지로 장식된 옷장을 무늬레이스로 된 흰 크로스로 덮어 놓아서 성탁비슷하게 보이는데다 기도대까지 붙여놓아서 예배당처럼 보이고 창문 위부분에 끼워놓은 붉은 색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햇살까지 비칠때 침실이 만들어내는 카톨릭적인 분위기는 「콩브레」에서 묘사되는 레오니아주머니의 침실을 연상하게 한다. 점심시간이 되기 훨씬 전에 사람들이 지쳐서 산보를 일찍 끝내고 돌아올 때 지나오는 「메제글리즈」²⁸⁾ 「콩브레」에서 그대로 「메제글리즈」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집에 돌아온 그들이 아직 때도 안되었는데 식탁에 앉으면 벌써 오정이 된 것으로 착각을 일으킨 「나」의 부모는 「나」의 독서를 방해하며 “Allons, ferme ton livre, on va déjeuner”라는 숙명적인 말을 하는데²⁹⁾ 이것은 「콩브레」에서 잘자라고 엄마가 해주는 유명한 뽀뽀장면에서 엄한 아버지가 하는 숙명적인 말

“Allons, monte te coucher, pas d'explications!”³⁰⁾

28) S.L., p. 42. 그러나 Pastiches et mélanges에서는 Méséglise가 아니라 Méréglise로 바뀐다. C.B.S., p. 162.

29) B.S.B., p. 162; S.L., p. 42.

30) R.T.P., t. I, p. 36.

으로 대체되어 있다. 점심식탁에서 항상 같은 비율로 혼합하되 색채화가의 경험과 미식가의 육감으로 가장 적당한 장미빛이 되었을 때 그치는 크림과 딸기³¹⁾는 「콩브레」서는 딸기를 짓썰어서 섞어 장미빛이 되게 해서 먹는 크림치즈³²⁾가 되어 나온다. 그리고 grand-tante의 성격을 특징 짓는 겸허한 태도 및 어떤 종류의 요리만드는 법, 베토벤의 소나타를 연주하는 법, 상냥하게 손님을 접대하는 법에서 그가 엄격하게 추구하는 완벽성의 기준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마르셀의 할머니가 추구하는 완벽성으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마을 끝의 정원 안쪽에 있는 초원에 핀 미나리아재비와 그 반대편 작은길에 핀 들장미 그리고 산사나무꽃은 「콩브레」에서 이웃인 스완네집의 정원의 울타리를 장식하는 꽃이 된다. 가마귀가 점점이 앉아있는 슬레이트들을 이은 두건을 저녁의 파란빛 솟에 우뚝 세우고 서 있는 성당의 모습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생틸레르성당의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다. 이러한 수많은 예를 통해서 이 서문의 많은 요소들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나오는 유사한 요소들의 원형임을 알 수 있다.

제목은 「독서에 대하여」로 되어있는데 이처럼 독서 그자체에 관한 고찰이 전반부에서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리스킨이 「왕들의 보고」 속에서 독서에 부여하고 있는 그 막중한 역할을 프루스트는 인생에서 독서가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자기 자신의 어린시절의 독서경험을 장황하게 보여줌으로써 말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프루스트에 의하면 어린시절의 독서는 그때 읽은 책에 그것을 읽은 장소나 날들의 이미지등 외부적인 요소들이 단단히 결합된채 보존되어 있어서 많은 세월이 지나 그 책을 읽은 사람의 외형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하여 깊은 주름이 패이고 머리는 백발이 되거나 벗어져버리고 어린시절에 온종일 어른의 눈을 피해가며 읽은 책의 내용은 모두 잊어버려도 그옛날에 읽은 책을 들춰보면 거기에 결합한 형태로 깊은 망자의 늪 속에 가라앉아있던 지난날들이 그것을 계기로 마치 마법사의 주문에서 풀려나듯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데 독서가 지니고 있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리스킨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프루스트가 전반부에서 독자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다. 독서의 이런 구실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부각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제 1권 「스완네집 쪽으로」의 제 1부 「콩브레」에서 어느날 밤 스완씨의 방문으로 어머니를 뺏겼던 마르셀의 절망을 달래느라고 침대에 옆에 앉은 어머니가 낭독해주시던 「프랑수아 르 샹피」는 제 7편 제 3장에서 수십년이 지난 후 게르망트대공비백의 마티네에 초대되어 간 그 저택의 응접실 겸 서고에서 마르셀의 눈에 띄게 된다. 그것은 지난날의 콩브레시절 전체를 그때의 감각, 인상과 함께 되살아 나게 해주어 그러한 감각, 인상을 그와 같은 만큼의 사상을 지닌 형상으로 번역하는 것, 정신적 등가물로 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잃어버린 시간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요 예술작품이 완성되는 유일한 방법이

31) S.L., p. 42; C.B.S., p. 162.

32) R.T.P., t. I, p. 139.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서문의 후반부에서 비로소 독서론다운 독서론이 전개되는데 러스킨의 독서론에 붙일 서문이라는 이 글의 성격때문이겠으나 러스킨이 펴고 있는 주장을 비판하는 형식으로 프루스트는 몇가지 논거를 검토해 나간다. 먼저 독서의 유용성을 강조하기 위한 러스킨의 주장을 데카르트의 방법서설 첫머리부분에 나오는 말을 이용해서 요약한다.

“(…) la lecture de tous les bons livres est comme une conversation avec les plus honnêtes gens des siècles passés qui en ont été les auteurs.”³³⁾

사실은 이 인용문이 데카르트가 과거의 한 시기에 스스로 한 공부에 관해 서술하는 대목에 나오는 것이고 책을 통해서 역사와 신학을 배우고 나서 그는 책을 통한 학문을 어떻게 버렸는가를 그 다음에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프루스트가 데카르트의 이 부분의 말만 인용해서 러스킨을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는 하나 여기서는 이 인용문 이후의 데카르트의 논지전개는 고려하지 않고 이 문면의 뜻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다. 어쨌든 러스킨은 책을 빛에 비유하고 독서를 우리 주위에서 사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현명한 사람들과의 대화와 똑같다는 주장을 했는데 프루스트는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개진한다. 책과 빛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예지를 더 많이 지녔느냐 적게 지녔느냐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책이나 빛과의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독서는 혼자 있을때 지성의 힘을 충분히 향수하고 영감을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수행하는 행위인데 반해서 회화는 지성의 힘을 순식간에 소멸시키고 고독 속에서는 수행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이다. 독서는 현명한 사람과의 대화와 같다는 러스킨의 주장을 프루스트는 이른바 「간접적비판」인 서문 속에서 부정하는 것으로 부족했던지 「직접적비판」이라고 부른 각주 속에서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왕들의 보고」의 각주 10, 11에서 집중적인 비판을 가하면서 사람은 책을 대신할 수 없으니 사람과 책은 다르다는 것, 양자의 본질적인 차이는 어느 한쪽에 더 많은 예지가 포함되어 있느냐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과 교류하는 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 고독속의 교류인 독서는 영혼의 활력을 집중시키고 정신에서 타인의 사고를 수용하기 때문에 타인의 힘에 의해서 자아를 발전시킬 수 있으나 회화에서는 정신적충격이 약해지기 때문에 영감이나 깊은 사고는 불가능하다는 것 등으로 요약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 결국 그 요지는 간접적주장과 같다.

그 다음에는 러스킨이 독서에 부여하고 있는 역할 즉 우리의 정신생활 속에서 독서가 담당하고 있는 결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비판을 가한다. 프루스트는 말하기를 독서는 우리를 정신생활로 이끄는 격려 “Incitations”³⁴⁾의 역할을 하며

33) C.S.B., p. 173; S.L., p. 60; René Descartes, *Oeuvres et Lettres*,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Paris, Gallimard, 1953, p. 128.

34) C.S.B., p. 176; S.L. p. 66.

“La lecture est au seuil de la vie spirituelle; elle peut nous y conduire: elle ne la constitue pas.”³⁵⁾

라고 한다. 만일에 우리가 독서를 규율로 만들어 놓는다면 겨러 부추김에 지나지 않는 것에 너무 과중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된다고 프루스트는 말하면서 독서의 역할을 제한한다.

우리의 정신생활에서의 독서의 역할을 논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프루스트가 몇해 뒤에 “Contre Sainte-Beuve”에서 밝히게 될 두개의 자아라는 생각을 이미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생트비브의 방법」에서 프루스트는

“En réalité, ce qu'on donne au public, c'est ce qu'on a écrit seul, pour soi-même, c'est bien l'œuvre de soi...Ce qu'on donne à l'intimité, c'est-à-dire à la conversation (si raffinée soit-elle, et la plus raffinée est la pire de toutes, car elle fausse la vie spirituelle en se l'associant: les conversations de Flaubert avec sa nièce et l'horloger sont sans danger) et à ces productions destinées à l'intimité, c'est-à-dire rapetissées au goût de quelques personnes et qui ne sont guère que de la conversation écrite, c'est l'œuvre d'un soi bien plus extérieur, non pas du moi profond qu'on ne retrouve qu'en faisant abstractions des autres et du moi qui connaît les autres, le moi qui a attendu pendant qu'on était avec les autres, qu'on sent bien le seul réel, et pour lequel seul les artistes finissent par vivre, comme un dieu qu'ils quittent de moins en moins et à qui ils ont sacrifié une vie qui ne sert qu'à l'honorer.”³⁶⁾

여기서 보는 타인과의 관계,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의 회화라는 형태, 고독과 정신생활 등은 이 서문에서 독서행위와 대화행위에 관해 성찰한 것이다.

이러한 리스킨 비판에 이어서 프루스트는 자신의 독서론을 전개한다. 그 속에서 프루스트는 교양인이 흔히 빠지기 쉬운 독서의 이상숭배, 그리고 멀리 위트레히트의 수도원에 보관된 고문서를 찾으러 가는 학자나 역사가처럼 진리가 외부에 있다고 믿고 구하기 힘든 귀중한 자료를 읽는 것 자체가 진리의 탐구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독서관의 위험, 애서취미의 위험을 지적하는 한편, 독서가 갖는 일종의 정신치료 효과에 의해 나태한 정신을 끊임없이 정신생활로 다시 이끌어들이는 유익한 임무를 소개하고, 독서가 다른 정신들과 접촉하는 만남의 장인만큼 정신의 예절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 독서는 정신 속에 먼 과거의 세계의 대변자로서 나타나므로 고전작품은 독자에게 자극을 주어 그것이 정신활동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주장을 하면서 독서의 긍정적인 가치를 내세우고 있다.

35) C.S.B., p. 179; S.L., p. 69.

36) C.S.B., p. 224.

IV

「독서에 대하여」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비할 때 거의 눈에도 띄지 않을만큼 미미한 한편의 글이고 게다가 리스킨의 저서의 번역판 서문용으로 집필된 것인만큼 그 길이나 용도로 판단한다면 별로 관심을 끌만한 요소가 없는 것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프루스트의 평생에 걸친 정신활동의 업적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통합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대로 상당한 존재이유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프루스트는 1895년부터 약5년간 집필하던 「장 상퇴이유」를 단념하고 리스킨을 읽으면서 그에게 경도하여 「아미앵의 성서」를 번역하고 이 작업을 통하여 존경하며 사숙하는 이 스승의 저작들을 이해하고 그의 사상을 완전히 흡수 소화하여 정신적양분으로 삼았다. 포기한 장편소설의 재집필 계획도 서지 않은 채 또다시 번역한 것이 「참깨와 백합」이며 여기에 붙일 서문 「독서에 대하여」는 이제까지 대가에게 자발적인 글종을 해 온 프루스트가 리스킨의 주장에 비판을 가하고 자기 자신의 소신을 편 글이다. 상세한 주로부터 시작한 이 서문에서는 먼저 어린시절 방학중의 하루의 독서경험을 회상하는 전반부로부터 시작하여 후반부에서 본격적으로 리스킨의 독서론에서 자기가 의견이 달리하는 대목을 들어 반대하면서 비판을 가했다.

독서에 대한 의견의 주장과 리스킨의 독서론에 대한 비판 못지 않게 우리는 프루스트가 이 글에서 이미 그후의 대작에서 사용될 여러가지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아날로지 감각, 동사의 직설법반과거를 기본시제로 사용한 것, 「콩브레」를 여러모로 연상케 하는 독서의 하루가 진행되는 집, 식당, 정원 등의 묘사, 어린시절의 독서에서는 책 자체보다도 독서하던 날과 장소에 관련된 이미지들이 책에 결부되어 보존되었다가 후일에 어떤 계기만 있으면 생생하게 그 날들의 기억이 되살아 난다는, 후에 무의지적기억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각의 싹같은 것, 그리고 후반부에서 책—독도와 벗—대화의 대비를 가지고 리스킨을 비판할 때 후에 「생트뵈브의 방법론」에서 제시하게 될 두 자아 즉 사회적인 자아와 고독 속에서 창조하는 자아라는 생각의 싹 등이 그것이다. 이것들이 이 서문에서는 아직 어린 싹의 단계에 있고 그 후에 다시 모작, 생트뵈브에 대한 반론 등의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꽃피게 될 것이므로 이 서문은 그것을 위한 준비와 습작의 한과정이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Descartes, René (1953), *Oeuvres et Lettres*, textes présentés par André Bridoux,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Paris.

- Diesbach, Ghislain de (1991), *Proust*, Paris.
- Painter, George (1985), *Marcel Proust, 1871~1903. Les années de jeunesse*, Traduit par G. Cattai et R.-P. Vial, nouvelle édition, Paris.
- Proust, Marcel (1954), *A la recherche du temps perdu*, texte établi et présenté par P. Clarac et A. Ferré, 3 vol.,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Paris.
- _____ (1971) *Contre Sainte-Beuve*, précédé de *Pastiches et mélanges*, et suivi de *Essais et articles*, éd. Clarac et Sandre,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Paris.
- _____ (1976), *Correspondance, Tome II, 1896~1901*, texte établi, présenté et annoté par Philip Kolb, Paris.
- _____ (1976), *Correspondance, Tome III, 1902~1903*, texte établi, présenté et annoté par Philip Kolb, Paris.
- _____ (1978), *Correspondance, Tome IV, 1904*, texte établi, présenté et annoté par Philip Kolb, Paris.
- _____ (1979), *Correspondance, Tome V, 1905*, texte établi, présenté et annoté par Philip Kolb, Paris.
- _____ (1971), *Jean Santeuil*, précédé de *Les plaisirs et les jours*, éd. Clarac et Sandre, “Bibliothèque de la Pléiade,” Paris.
- Ruskin (1986), *La Bible d'Amiens*, traduction, notes et préface de Marcel Proust, “10/18,” Paris.
- _____ (1983), *Sésame et les Lys*, précédé de *Sur la lecture*, traduction, notes et préface de Marcel Proust, “Regards Littéraires,” Bruxelles.

《Résumé》

Quelques remarques sur *Sur la lecture*

Seung-O Hong

On pourrait penser que *Sur la lecture* de Marcel Proust est un écrit minime, presque imperceptible et peu important à côté de son grand roman *A la recherche du temps perdu* d'autant que celui-là est un essai sur la lecture qui sert de préface à sa traduction d'un livre de Ruskin. Mais en réalité, il n'est point négligeable parce qu'il nous offre beaucoup d'éléments qui seront développés et repris plus tard dans son oeuvre capitale, et que tout

ce qu'il écrit avant ce roman finit par se fondre dans celui-ci. Nous avons voulu examiner comment Proust en est-il arrivé à écrire cette préface, quels en sont les traits caractéristiques.

Après avoir renoncé à terminer *Jean Santeuil*, Proust lit les ouvrages de John Ruskin. Très influencé par cet auteur anglais, il traduit son oeuvre *La Bible d'Amiens* et grâce à ce travail il en arrive à comprendre à fond son maître vénéré, à absorber et digérer complètement ses pensées pour en faire ses éléments nutritifs. En 1904, il commence à traduire cette fois un autre ouvrage de Ruskin *Le Sésame et les lys*. Lorsque sa traduction de la première partie du *Sésame* est terminée, il entame celle de la deuxième partie et en même temps rédige une préface intitulée *Sur la lecture* dans laquelle Proust, qui se tenait jusque là dans la servitude volontaire, essaie de faire "une sorte de critique indirecte" de la doctrine de son maître et affirme sa propre opinion.

Ces quelques pages qui commencent par une note assez longue et détaillée, se composent de deux parties: la première consacrée à une évocation de son enfance, surtout des journées de lecture, et la seconde, consacrée à la critique de la conception ruskinienne de la lecture. Si Proust évoque dans la première partie son expérience des lectures d'enfance pleines de charme au lieu d'exposer sa conception de la lecture proprement dite, c'est qu'il veut nous montrer que "la lecture ne doit pas jouer dans la vie le rôle prépondérant que lui assigne Ruskin" et que les lectures d'enfance "laissent en nous l'image des lieux et des jours où nous les avons faites" et le temps venu, elles rendront au lecteur les souvenirs. Dans la deuxième partie, il soutient d'abord la contrepartie de la conception ruskinienne de la lecture selon laquelle la lecture est comme une conversation avec les plus honnêtes gens et affirme son opinion selon laquelle la lecture ne peut être assimilée à une conversation à cause de la différence de leur manière de communication. Il soutient ensuite que la lecture n'est qu'une "incitation" à la vie spirituelle et ne peut jamais remplacer celle-ci.

On peut trouver dans cette préface des éléments importants qui seront repris dans son roman: l'emploi de l'imparfait de l'indicatif, la description des lieux où Proust enfant s'absorbe dans la lecture, tels que la maison, la salle à manger, sa chambre et le jardin, ainsi que celle des meubles, de l'église, de la place, etc.. Mais tout cela est encore dans l'état de l'ébauche de ce que sera plus tard son roman.